

서울샘터 교회 주보

2019년 11월 17일
추수감사절
교회력(다해), 전체 51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창조절 열둘째 주일**

☞ 오늘의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눅 21: 5, 6).



은행나무 잎이 바닥을 가득 채웠다. 11월 11일 안동 댐 근처.
정용섭 목사 사진.

예배처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o/churchs>

이번주는
4층 시청각실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를 겁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실 하나님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현실(reality)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창조의 하나님, 당신만이 세상의 ‘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세력, 그리고 그 어떤 이념도 우리에게 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일 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눈을 파는 동안에도/ 온갖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자신들의 몫을 감당하여 결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

지구의 먹을거리들이 우리 눈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태양, 물, 탄소, 안개, 나비, 별, 그리고 지구에 가득한 수많은 원소와 분자들이/ 이런 일에 비밀스럽게 연관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십시오. 당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7장(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 다 함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왜곡, 위축,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짓과 위선에 빠졌습니다. 실제로는 선하지 않은데도 선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으며,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도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 선물인데도 제 것으로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손님인데도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세상을 곧 떠나야 하는데도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아뢴 모든 참회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167장 (하늘 나는 새를 보라) ... 다 함께

민로아(F. S. Miller)

나영수

곳거리 F6 C F6

1. 하 늘 나 - 는 새 를 보 라 농 사 하 지 - 않 - 으 며
2. 들 에 피 - 는 꽃 을 보 라 길 씩 수 고 - 안 - 해 도
3. 너 는 먼 - 저 주 의 나 라 주 의 의 를 - 구 - 하 라

F6 C F6

곡 식 모 - 아 곳 간 안 에 들 인 것 이 - 없 - 어 도
술 로 몬 - 의 의 복 보 다 더 옥 아 름 - 답 - 도 다
하 나 님 - 이 모 르 는 것 을 너 회 에 게 - 주 - 신 다

F6 Dm F6 C

하 늘 계 신 아 버 지 가 고 이 먹 여 주 - 시 니
아 궁 속 에 던 질 풀 도 고 이 입 히 시 - 거 늘
내 일 일 을 생 각 하 고 미 리 염 려 말 - 아 라

F6 C F6

먹 고 마 - 실 것 을 위 해 아 무 염 려 - 말 - 아 라
사 랑 하 - 는 자 녀 들 을 있 는 힘 을 - 다 - 하 라
오 늘 일 - 만 생 각 하 고



안동댐 아래쪽 '비밀의 정원' 풍경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낮두리와 하소연과 잔소리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이사야 65: 17-25 ... 신창식 집사

성시교독 시편 98: 1-9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새노래로 주님앞에 영광찬송 드리어라 우리주님 많고많은 표적기사 이루셨네
-크신능력 오른손과 거룩하신 그팔로써 참된구원 베푸셨다 참된승리 거두셨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구원을 알리시고 못나라들 면전에서 의로우심 보이셨다
-온땅이여 주님앞에 환호성을 올리어라 기뻐하며 목청높여 큰찬양을 올리어라
 거문고를 뜯으면서 주를높이 찬양하라 온갖악기 연주하며 큰찬양을 올리어라
-임금이신 주님앞에 은나팔과 뿔나팔을 신명나게 불어대며 큰소리로 환호하라
 강과바다 모든곳에 살아있는 것들이여 이세상과 모든곳에 살아가는 것들이여
 뇌성치듯 큰소리로 주님앞에 환호하라
-강들이여 산들이여 모두함께 손뼉치고 큰소리로 환호성을 주님앞에 올리어라
 주님께서 이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나니 주님앞에 큰소리로 환호성을 올리어라
-주님께서 정의롭게 온세상을 심판하사 못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이로다

제2독서 데살로니가후서 3: 6-13 ... 신창식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21: 5-19 ... 신창식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설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날! ... 박재진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 다 함께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창조절 열두 번째 주일이자 2019년 추수감사절 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주 끝날이나 죽는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절체절명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용감하게 너그럽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추수감사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전업으로 농사짓지 않으나 지구 안에서 영위되는 우리의 삶이 ‘씨와 결실’의 신비한 원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농사꾼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북미 교회와 남한 교회의 일반적인 전통에 따라서 조출한 추수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 *예배 후에 전교우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 *전민제, 김지혜 집사 가정에서 아들(전지민) 백일 기념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 *지난 주에 서홍식, 이병임 부부가 서울샘터교회 교인등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 *2019년 정기총회(12월 8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운영위원, 회계, 후보 담당자, 예배실 대관 예약)에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현 운영위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헌금 360,000원
(2019/11/10)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예배준비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창조절 12주	11/17	4층 시청각실	박재진	신창식	양혜선
창조절 13주	11/24	2층 세미나 2실	이춘우	채진진	이기령
대림절 1주	12/1	4층 아트컬리지 5실	박재진	고중흥	박수진
대림절 2주	12/8	4층 아트컬리지 5실	정용섭	윤동희	오미영
대림절 3주	12/15	2층 세미나 1실	이춘우	이유선	윤혜정

11월 10일 설교 “두려워 말라!” 발췌

영광과 평화

본문에서 반복되는 어떤 한 문장을 여러분이 눈치챘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라는 문장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자기의 좁은 생각을 청중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4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여섯 번이나 반복됩니다. 9절에는 두 번 나옵니다. 9절이 학개 선지자가 말하려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만군’은 고대 유대인들의 하나님 명칭입니다. 히브리어로 ‘스바요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루터 성경은 원어인 스바요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KJV은 재미있게도 ‘the LORD of hosts’로 표기했습니다. host는 손님을 초대할 주인, 또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인 만군의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쳤으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이 바로 스바요트 여호와이십니다. 학개는 바로 그 스바요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대답하게 외쳤습니다.

9절에서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성전에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광과 평화는 다른 개념처럼 들리지만 서로 깊이 연관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사건이나 그런 순간을 가리킵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은 성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로 평화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가 구원이었습니다. 늘 전쟁의 위협을 받았기에 평화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알 때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저는 학개의 메시지가 선지자의 설교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의 주장에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는 그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의 성전 정화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의 육체가 참된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요 2:21).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천사들의 합창을 이렇게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바울은 고후 4: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발현되었다는 뜻입니다.

학개가 살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염려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합니다.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피하려고 다른 일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찾았습니까? 제가 찾은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예수에게 일어난 일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집중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볼 것이며,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